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11. 30.(월) 총 2매(본문2)	
국토 교통부	공공주택 총괄과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성호철, 사무관 김병채 • ☎ (044) 201-4514 	
	공공주택 지원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최아름, 서기관 최정원, 사무관 서형우 • ☎ (044) 201-4533 	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		

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형 주택을 신속하게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

< 관련 보도내용(11.30) >

- ◆ 12월에 공급한다면...‘공공 전세’ 물량 파악도 안돼(서울경제)
 - ‘공공임대 공실활용 전세형’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물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- ◆ ‘전세대책’이라더니...정부 공급량 70% 이상은 ‘월세 내는 집’(한국일보)
 - 전세대비 보증금이 80% 수준인 ‘준전세’로 공급...20%는 월세로
 - 연말 모집 ‘장기 공실 공공임대’도 전셋집 아닌 ‘보증부 월세’로 공급

□ 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실은 우선 현행 기준에 따라 즉시 공급할 계획이며,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형*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* 보증금 비율을 80%로 상향하여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

- 이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하여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며, 주택의 위치와 임대조건 등은 공고 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공실을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더라도 연쇄적인 전·월세 수요 이동으로 시장거래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,

- 향후에도 3개월 단위로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.

□ “전세형 공공임대”의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세 30~80%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.

○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함께 보증금 비율을 80%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.

○ 아울러, ‘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’에 따라 신설 예정인 “공공 전세 주택”은 월임대료 없이 전세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김병채 사무관(☎ 044-201-45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